

# 2012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

## 도덕 · 윤리

2차 시험	2교시	2문항 50점	시험 시간 120분
-------	-----	---------	------------

### 수험생 유의 사항

1. 문제지(초안 작성 용지 포함)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. **답안지는 문항당 2쪽(교시당 4쪽),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.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시오.**
2.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**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**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, 수험 번호,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'●'로 표기하시오. '●'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오.

	1번 문항, 1번째 답안지 표기		1번 문항, 2번째 답안지 표기	
예시	문항 1 전용 답안지	쪽 번호 표기란	문항 1 전용 답안지	쪽 번호 표기란
		● ②		① ●

3. 답안은 **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 펜**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(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.).
4. 수학, 과학 과목 등 필요한 경우 답안지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.
5.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. 단,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, 하위 문항의 번호(1-1, 1-2)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.
6.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**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 '끝' 자를 쓰시오**(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각 하위 문항에도 '끝' 자를 쓰시오.).
7.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.
8.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(=)을 그으시오.
9. **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.**
  -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
  - 답안란 이외에(뒷면 등) 작성한 부분
  -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
  -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
  -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
  -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
10.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.
11. **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, 수험 번호,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·표기한 후, 4쪽 모두 제출하시오.**

3. (가)는 선진 유가 경전의 구절이고, (나)와 (다)는 이와 관련된 한국 윤리 사상가들의 주장이다.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【30점】

(가) ㉠ 하늘[天]이 명하신 것을 ㉡ 성(性)이라 이르고, 성을 따르는 것을 도(道)라 이르고, 도를 닦는 것을 교(教)라 이른다.

(나)

- 주자(朱子)가 말씀하시길 “사단(四端)은 이(理)의 발(發)이요, 칠정(七情)은 기(氣)의 발(發)이다.”라고 하셨는데,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은 실로 의심할 수가 없다. 그러나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으니, 발한 것이 비록 전부 기는 아니지만 기질의 섞임이 있어 기의 발이라고 하니, 이것이 바로 기질의 성에 관한 설이다.
- 이와 기를 겸하고 성과 정을 통솔하는 것이 마음[心]이다. 성이 발현하여 정으로 되는 즈음이 바로 마음의 기미요 만물 변화의 근본이니, 그로부터 선과 악이 나뉘어 생기는 것이다.

(다)

- 하늘이 나에게 성(性)을 부여하여, 덕을 좋아하는 정(情)과 선을 택하는 능력을 주었다. 그 성은 비록 나에게 있으나 그 근본은 천명(天命)이다.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으로 인식하는 까닭에 이에 태만하지만, 한 번 추구하여 이 본성을 되찾으면 본래 하늘이 부여한 빛나고 빛나는 천명임을 인식하게 된다. 이 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고 이 성이 부끄러운 바를 행함이 바로 천명에 대한 태만함이고 천명을 거스름이니 그 죄는 하늘까지 솟을 것이다.
- 군자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두려워 감히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은 상제(上帝)가 굽어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.

3-1. (가)의 사상과 연관지어 (나)와 (다) 사상가의 ㉠에 대한 견해를, 사상사적 맥락과 도덕 실천의 근거에서 각각 비교하고, 이를 바탕으로 ㉡에 대한 (나)와 (다) 사상가의 관점을 설명하시오. 【20점】

3-2. ㉠과 연관지어 (나)와 (다) 사상가가 제시한 수양법의 핵심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, 이를 근거로 오늘날 도덕과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 3가지와 각각의 의의를 제시하시오. 【10점】

4. ㉠에 대한 (가) 사상가의 입장을 밝히고 ㉡과 관련지어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. 그리고 (나) 사상가의 관점에서 ㉠의 근거에 대하여 자유와 강제의 의미, 강제의 필요성, 자유의 역설을 포함하여 서술하고, 이를 바탕으로 ㉠을 형성하기 위하여 강조해야 할 도덕적 가치·덕목 3가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. 【20점】

(가) ㉡ ‘인민’과 ‘통치’라는 단어가 갖는 분명한 의미에서,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또 의미할 수도 없다. 전형적인 시민은 그가 정치 분야에 받을 들여놓는 즉시 더 낮은 지적 능력의 수준으로 추락한다. 우리가 정치과정의 분석에서 직면하는 것은 대체로 진정한 인민의 의지가 아니라 날조된 의지이다. 그렇다면, 인민의 의지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지 추진력은 아니다. 즉 인민은 정부의 생산자 이상도 아니고 그 이상일 수도 없으며, 민주주의는 단지 결정행위를 행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할 따름이다.

(나) 사회계약이 쓸모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, 이 사회계약은 ㉢ 일반의지에의 복종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 전체가 그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는 약속까지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. 이것은 ㉣ 시민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(다) ○ 민주주의와 참여  
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규범적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㉤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려는 자세를 갖는다.

-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『윤리와 사상』 -

수고하셨습니다